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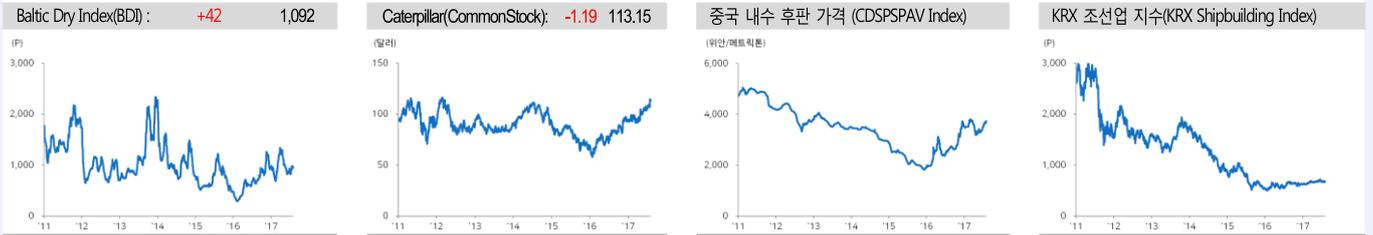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831.5	17.8	173,500	1.8	1.2	-3.9	25.3	62.5	141.2	0.9	0.9	1.3	0.6
현대로보틱스	5,731.2	17.4	476,000	0.2	16.8	22.1	NA	5.2	5.9	1.0	0.9	19.4	15.8
현대일렉트릭	1,183.5	7.5	319,000	-2.6	3.7	13.9	NA	15.6	10.6	1.5	1.3	9.5	13.1
현대건설기계	1,440.8	9.9	402,000	-0.5	9.8	67.5	NA	12.5	9.6	1.6	1.4	13.1	15.8
삼성중공업	4,290.0	19.5	11,000	-2.2	-9.1	-3.5	18.9	55.8	119.0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120.0	13.0	106,000	-0.5	1.4	17.0	57.7	10.4	35.9	0.9	0.8	8.9	2.4
한진중공업	456.6	4.3	4,305	-3.3	-3.7	17.3	27.9	-13.4	9.7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58.7	28.7	51,100	-0.2	-15.1	-21.7	-11.0	9.5	9.0	1.4	1.2	15.9	14.6
두산발켓	3,799.4	24.5	37,900	0.0	7.7	-2.8	5.7	16.6	15.2	1.1	1.0	6.6	6.7
현대로템	1,598.0	28.8	18,800	1.6	-6.5	-15.1	3.6	35.6	24.1	1.1	1.1	3.2	4.6
하이룩코리아	322.0	46.5	23,650	0.0	-5.6	0.6	12.1	12.4	10.9	1.0	0.9	8.5	9.0
성광켄드	282.0	13.7	9,860	-1.3	-7.0	-10.4	11.3	31.9	18.4	0.6	0.6	1.9	3.2
태광	254.4	17.1	9,600	-1.9	-7.7	-0.3	15.8	35.9	19.8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017.4	10.9	18,950	0.0	-11.4	-20.2	-30.3	20.1	10.1	0.7	0.6	3.8	6.1
두산인프라코어	1,771.7	13.8	8,540	-2.0	0.0	-8.5	-3.2	10.1	8.1	0.9	0.8	8.6	10.4
두산엔진	282.9	5.5	4,070	-1.9	4.3	2.0	23.9	23.7	32.0	0.5	0.5	2.2	1.6
한국항공우주산업	3,869.8	19.3	39,700	0.5	-31.9	-37.9	-40.7	16.5	13.8	2.5	2.2	15.6	16.7
한화테크윈	2,083.0	22.0	39,600	0.8	-8.9	-21.9	-8.9	19.3	14.6	0.9	0.8	4.6	5.8
LG에너지솔루션	1,815.0	21.1	82,500	-1.2	17.5	0.9	2.5	18.3	18.0	2.5	2.3	15.4	13.5
태웅	434.2	4.2	21,700	-0.7	-12.1	-19.8	-3.3	N/A	N/A	N/A	N/A	N/A	N/A
동성하이텍	163.3	3.0	6,050	-2.7	-3.2	-11.5	5.2	-28.1	12.0	1.5	1.4	-5.1	12.0
한국카본	266.4	16.7	6,060	-1.0	-7.2	-8.0	0.2	23.8	22.5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hell's Appomattox hull sails from South Korea

오일 메이저 업체 Shell의 Appomattox 유전에서 시추를 하게 될 Semi-Rig가 한국에서 미국 텍사스로 이동함. 해당 시추설비는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했고, 현재 60% 정도 제작함. 남은 공정은 상부 구조물을 결합하는 것으로, 텍사스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임. (Upstream)

### Socatra lines up order for series of new MR tankers

프랑스 해운사 Socatra는 MR탱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STX조선 및 중국 Jinling Shipyard에 총 2+2척을 발주할 계획임. 각 선박은 5만DWT 규모로, 현재 LOI를 체결함.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인, IMO Tier III 등급에 부합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 Continental CEO vows no new debt for drilling

미국의 가장 큰 Shale oil 생산업체 Continental Resources의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성장의 기회를 포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원유 공급이 WTI 50불을 유지할 수 없고, 수요의 성장을 감안해도 현재 유가 수준에서 시추설비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Upstream)

### Vale launches bidding war for 12 VLCC newbuildings

브라질 채광회사 Vale은 최대 12척의 VLCC 용선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선정된 해운사가 입찰에 초대됐다고 밝힘. 해당 선박은 IMO Tier III에 대비해 Gas-ready 선박으로 발주될 예정이고, 동시에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도 장착될 계획임. (TradeWinds)

### More Polaris VLCCs head for repairs

Polaris Shipping, 18척의 VLCC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해 선박들을 중국 수리 조선소로 보냄. 안전 검사를 통해 VLCC를 개조한 VLCC들이 Vale가 신조를 발주하기 전까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계획임. Polaris는 수리비가 높을 경우 개조 VLCC를 폐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Tradewinds)

### 남미 석유제품 수요 증가세...MR탱커 발주 이끄나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지역의 석유제품 수입량이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함. 이에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MR탱커 수요의 증가를 기대함. 올해 2분기 남미의 MR탱커 Spot 운임은 1.5만달러 수준으로, 1만 달러 수준인 아시아 지역과 큰 차이를 가짐.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